교차로 출가

종립학교 학생·학부모 수계

녹원 동국대이사장은 1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동대부중,고와 명성여중, 여고등 종립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 1천명을 대상으로 합동수계대법회를 가졌다.

실직자 기금마련 법회서 법문

철웅 파계사 성전암 조실은 15일 부산 대승프라임 빌딩 9층에서 열린 성불사 초청 실직자 돕기 기금마련법회에서 법문했다.

평택 북부 경로의원 개원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 스님은 7일 평택시 북부경로의원을 개원, 본격적인 노인 무료진료에 나섰다. 스님은 이날 노인들에게 떡과 선물을 증정했다.

합창제 수익금 실직가정에

성광 화계사 주지는 10일 노원구민회관에서 화계사 합창단 창단 8주년 기념 이웃돕기 불교합창제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실직자 및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 성금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IMF 극복 법회서 강연

성각 망운암 주지는 14일 부산불교방송 주최로 열린 IMF 극복 특별법회에서 탤런트 전원주씨와 함께 강연했다.

구산대선사 15주기 추모재

현지 송광사 주지는 31일 오전 10시 30분 대웅보전에서 구산대선사 제15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소년소녀가장의 밤' 행사

종수 카루나모임 명예회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소년소녀가장의 밤을 11일 오후 5시 경주 콩코드호텔 대연회장에서 가졌다.

삼화불교대 신행실수 교육

혜인 삼화불교대학장은 19일부터 2박3일간 발우공양예법, 한국불교정신, 유아포교방법론, 철야정진 등 신행실수 교육을 실시한다.(02)511-2026

생활보호대상자에 송년선물

상덕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14일 태평양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송년선물을 전달했다.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

덕수 부산삼광사 주지는 1일 지관전에서 불교방송 및 대한불자가수회와 공동으로 생방송 '나누는 기쁨, 이웃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을 가졌다.

길상사 개원 1돌…새체제 갖춰 주지 지관·선원장 지묵스님

주말수련회 상설·매월 포살법회

◇ 길상사 개원 한돌을 맞아 새로 부임한 주지 지관스님(사진 왼쪽)과 선원장 지묵스님.

"명실상부한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이 되어야 한다는 회주스님의 뜻에 따라 묵탁소리 끊이지 않는 도심속 전통수행사찰로서의 내면 갖추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3일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겸한 취임식을 가진 길상사(회주 법정) 신임 주지 지관스님의 말이다.

이날 길상사 선원장에 취임한 지묵스님은 "내년 1월 중순부터 1박2일 일정의 주말 수련회를 상설화하고, 수련회를 회향할 때마다 수계식을 통해 참불자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길상사의 모든 법회의식을 한글로 진행해 불자들이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덕주 김영한보살로부터 무주상 보시를 받아 창건된 길상사는 그동안 도량정비와 신행단체 구성 등 바쁜 1년을 보냈다. 이제 회주스님의 당초 뜻에 따라 맑고향기롭게 지원사찰로써의 여법한 길상사 운영을 위해 소법당 옆에 있던 맑고향기롭게 중앙모임의 사무실을 길상사 사무실내로 이전하고, 〈맑고향기롭게〉 회지에 길상사의 전반적인 운영소식도 담는다.

지관스님은 "회주스님께서 봄가을 2차례 보살계수계법회와 매짝수달 세째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직접 이끌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서 "매월 자자포살법회도 열어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불자들 스스로 참회하며 최소한의 계율과 도덕을 지켜나가는 맑고향기로운 불자들의 도량을 일궈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산악인 박영석씨 마나슬루봉 등정

동국대 정각원에서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릴 정도로 신심깊은 불자인 동국대 산악부원 박영석씨가 6일 히말라야 마나슬루봉(8,511m) 등정에 성공했다. 히말라야 8천미터급 고봉 14좌 등정에 도전하고 있는 박씨는 이번 등반을 합쳐 모두 10개봉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시민선방 운영·화장문화 캠페인

생명나눔실천회 초대 후원회장 김성호씨

"내년부터 후원회 정관 제정과 자원봉사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회원들의 신행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서울 뉴월드호텔에서 열린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서 94년 창립이후 회장없이 활동해 온 생명나눔실천회 후원회 초대회장에 선임된 김성호 회장(59·불교미술전시관 관장)은 부회장단 및 각 시·도별 지역장을 선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서울 강남에 들어서는 선사상연구원을 중심으로 시민선방을 상설할 계획, 또 김회장은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과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화장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김재경 기자

☞ 3면 '가처분'서 계속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전국승려대회가 위 송월주의 해임과 초종헌적 권한을 가지는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의 성립에 관하여 한 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청인 종단의 종헌은 '종단 비상시'에 한하여 원로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종정이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분쟁을 둘러싼 사태가 '종단 비상시'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신청인 종단의 중앙종회를 해산한 원로회의의 결의와 종정의 지시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 한편, 피신청인들은 위 1998. 11. 11. 자 전국승려대회는 신청인 종단의 최고 권위자인 종정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신청인 종단에서는 종정이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신청인 종단의 종헌에 상세히 나타나 있는 종정의 권한에 종정 해임이나, 전국승려대회의 소집권과 같은 구체적 권한은 포함되지 않고, 신청인 종단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종정의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전국승려대회를 소집하는 등의 권한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 위 송월주의 총무원장 출마에 기한 이 사건 분쟁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종정의 지시에 불구하고, 위 1998. 11. 11.자 전국승려대회의 결의가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들고 있는 원로회의의 결의 역시 위 전국승려대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그 효력을 추인하는 것이므로, 위 원로회의의 결의를 이유로 초종헌적 권한을 가지는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의 출범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그렇다면, 신청인 종단의 총무집행권을 가지던 기존의 총무원측을 배제한 채 피신청인들이 총무원 건물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들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들은 위 홍익진이 대표하는 신청인 종단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4.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점유, 사용은 폭력적인 방법에 기한 것이었고, 피신청인들의 위 건물 점거로 인하여 총무행정을 마비당한 신청인 종단측에서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차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많은 폭력적 충돌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 및 재산적 손실과 신청인 종단의 업무마비로 인한 손실도 중대한 것이지만, 어려운 국가적 현실하에서 종교에 의지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상당수 국민의 정신적 충격과 그에 따른 신청인 종단의 권위 실추는 더욱 중대하고 회복하기 힘든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위 송월주도 총무원장 후보에서 사퇴하여 사실상 더 이상의 분쟁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신청인 종단 승려 모두는 이제 민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총무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국민들에 대한 정신적 지주로서, 또한 안식처로서의 신청인 종단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필요성은 시급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20일

△주 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안팎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교차로 재가

예술의 전당서 '고은 시의 밤'

고은 시인은 북한기행을 하며 쓴 시 낭송과 국악 가요공연이 함께 하는 '고은 시의 밤-산하여, 하나의 산하여' 행사를 16, 17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갖는다.

98 영화배우 송년의 밤 가져

한갑진 한진흥업주식회사 회장은 16일 하이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무엇이 두려우랴'의 출판 기념회 및 98 영화배우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관련기사 8면〉

방송개혁위원에 위촉

성낙승 불교방송사장은 8일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개혁위원회는 98년 12월부터 99년 2월까지 3개월동안 운영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경주관광진흥협의회장에

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은 7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인 관광업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문화관광진흥협의회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인세지불방법' 주제 출판포럼

윤청광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은 17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로 '인세 지불방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15회 출판포럼을 개최한다.

98 최우수 예술인에 선정

소설가 **이길용**씨(문화관광부 종무실장, 사진 왼쪽)와 연출가 **이윤택**씨가 한국예술평론가협회가 주최하는 98최우수예술인에 선정, 12일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수상식을 가졌다.

국제포교사회 송년법회

양장운 조계종국제포교사회장은 16일 오후 7시 연등불교국제회관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불심홍법원 차기 이사장에

하도명화 재단법인 불심홍법원 이사장은 2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유임됐다.

통일교육 공로 통일장관 표창

이하전 군불교진흥회 사무국장은 중고등학생과 군장병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21일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본란은 98년 11월 분열된 조계종의 모습으로 인해 실추된 한국불교의 위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만 있는 사부대중의 의견을 모아 정법 수호의 발판으로 삼고자 현대불교 신문에서 마련한 의견 광고지면입니다.

▶불교발전을 위한 의견 광고접수

TEL 02)737-8881
732-1522
FAX 02)737-0697

聖스러운 곳에서
혐오스러운 싸움판.
-정법사 밀본-

지금 시국이 어느땐데
쌈박질이냐.
법당에서 기도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정빈거사-

스님들 싸움에 스님들
끼리 해결하지 신도들을
부추겨서 동원하지 말라
-김진여행-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 될 수 없
다. 특히 폭력적 행위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려고
하는 모습은 마구니의 모
습이다.
-정암사 무여-

왜 이러십니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태을암 흥법-

존경하는원로 대덕스님
정법구현과 종단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십
시오.
-송림사 상덕-

시내에 나가기가
두렵다.
사람들 눈길이 따가워서
-삼오스님-

그만들 싸움하고
도나 닦아라.
-절에 앉 다니는 사람-

"願" 수행풍토
화합도량
-서광사 응관-

출가 본분사를
망각해서는 않됩니다.
-길상사 종인-

종단 돌아가는 게 답답
한 정도가 아니다.
속이 터진다.
-보원스님-

聖스러운 곳에서
협오스러운 싸움판.
조계종 분규의 당사자는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작금의 사태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무문
관 결제를 하십시오.
-청정암 성운-

말세에 양의 바탕이 법의
껍질을 쓴 무리들이 염치
없이 밤을 타고 세력에
휩쓸려 아첨을 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니 조계종
이여 어디로 가려는가?
-정혜사 성지-

위로 도를 구현 아래로
중생을 제도합시다
-해련사 지욱-

언론을 통해 조계종
분규사태 관련보도를
접하는 불자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종권 지향세력은 아는가
-관음사 반여거사-

참다운 개혁은 양쪽다
이땅에서
사라져 주는 것
-반야사 수인-

세속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
이전투구
-봉국사 도신-

드디어 조계종에도
총무원장 세습제
도입되다.
-석지봉-

부처님, 부처님 계신다면
지가 옳다고 하는 머리
만 중인 가짜들은 당장
지옥문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지일합장-

道는
어디에 . . .
-원봉 거사-

본사 주지 모임의 결
의에 지지를 보냅니다.
하루속히 수습하여 주
십시오.
-혜인정사 서봉-

불·법 이보전에 봉수
정례하옵고 속히 삼보를
회복하게 하소서.
-해국사 김정우-

사년 노력한게 와르르
무너지는구나
-부산 포교당스님-

잿밥에 눈멀어 돌아올
과보를 잊고 있는가?
어찌 감당하려는가
-현오거사-